

Focus 1

미국경제 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

1. 최근 미국경제 동향

□ 최근 미국 경기 큰 폭으로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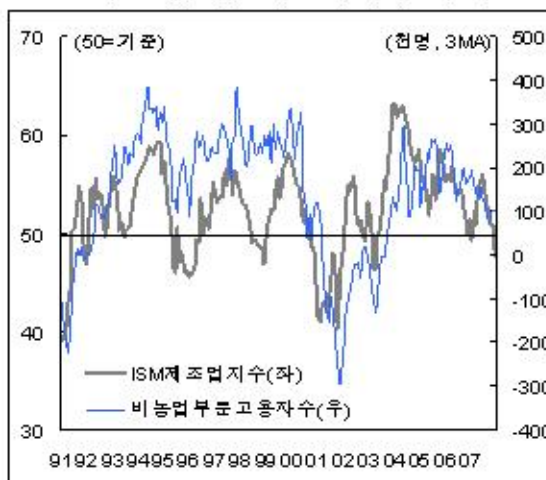
— 최근 미국 경기는 주택경기의 냉각에 따른 신용경색 파장이 소비재 판매와 고용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크게 하락

○ 지속된 달러약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주택경기 침체가 실물 경기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.

* 12월 비농업고용지표가 03년 8월 이후 가장 부진하게 나타났고 내구재 수요가 둔화되면서 제조업 ISM지수가 수축 국면으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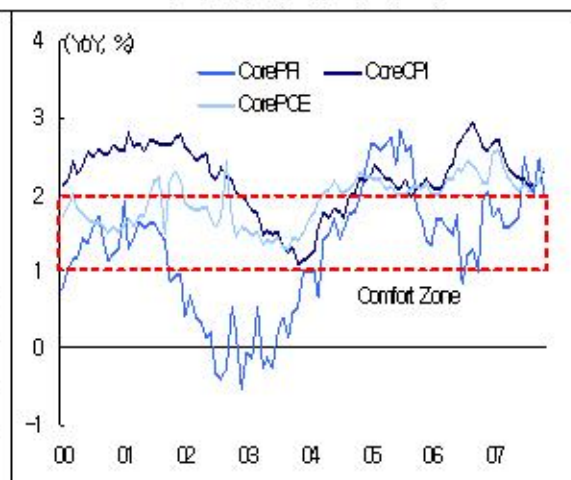
— 동 상황에서 주요 투자은행들이 2008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미 경기의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클 것임을 시사

〈미 고용 및 제조업지수 추이〉



자료 : Datastream

〈미 인플레이션 압력 추이〉



자료 : 연합뉴스포맷스, BE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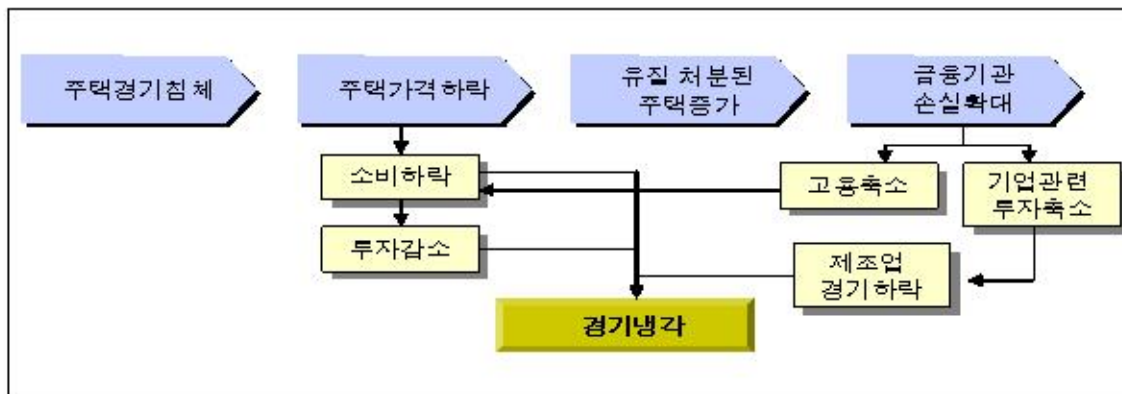
2. 미국경제 전망

- 서브프라임 파장으로 당분간 미국 경제의 후퇴국면은 불가피
 - 주택경기 침체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는 금융기관의 실적악화와 고용감소를 유발하여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
 - 주요 연구기관,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을 3,000~5,000억달러로 추정
 - 특히 서브프라임 부실과 함께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주택경기의 냉각이 지속될 전망
 -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투자은행의 실적이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
- 그러나 미국 경제가 대폭적인 침체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
 - 미 연준은 경기둔화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9월 이후 225bp의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며, 성명서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등 경기 방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.
 - 부시 정부도 2001년 경기침체 당시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취해진 세금감면 조치의 영구화를 촉구하고 있으며, 서브프라임 금리의 한시적 동결조치 등의 재정정책 수단 동원
 - 주요 IB들 역시 미 경기 침체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는 피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
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러한 일련의 재정 및 금융정책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때까지는 시차가 걸릴 것으로 판단

3. 미국 경기 후퇴에 따른 영향력 검토

- 과거보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으나 미국 경제의 후퇴는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
 - 미국 GDP가 세계 명목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1.3%를 정점으로 2006년에 23.5%까지 하락
 - 그러나 미국 GDP 구성의 약 70%가 소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, 미국 경기둔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과소평가하기 힘들
 - 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0% 초반대라고 가정하여도 미국 소비는 세계 경제성장의 15%정도를 담당하고 있음
 - 결국 미국 경기가 급락하여 소비위축이 크게 진행된다면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이 위축되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부품 및 중간재 수출이 시차를 두고 타격을 입을 수 있음
- 아울러 미국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
 - (원/달러 환율) 당분간 상승압력이 존재하나 향후 완만한 하락국면으로 전환될 전망

<미 서브프라임과 미국 경기 흐름도>



— 원/달러 환율은 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순매도, 계절적 요인(조선업체 수주 비수기, 무역수지 흑자 축소,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등)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

— 그러나 향후 미국의 경기 및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경우 완만한 하락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.

(금리) 미 금리인하 기조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로 외국인의 채권매수가 강화되며 시중금리는 당분간 완만한 하락흐름 예상

— 향후 미국 금리인하가 지속되면서 내외금리차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채권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CD 등 국내 단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전망

○ 내외금리차 확대는 우리 콜금리의 인하 압력을 확대시키는 요인

(주가)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회복가능성에 무게가 실림

4. 시사점

- 미국 경기 후퇴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업체는 수출 지역 다변화와 주요 금융지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
- 수출지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내부유보자금을 확충하고 환율, 주가, 금리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됨
- 정부 역시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

▶ 문의 :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김재홍 수석연구원 ☎ 6000-5341)